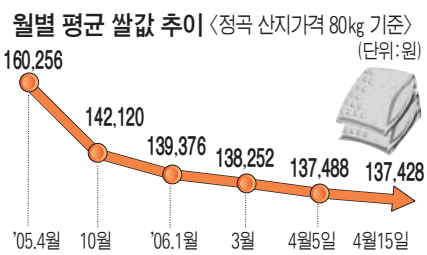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1228-0180

光州日報

www.dakajob.com
 "당신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VIP No.1 결혼정보회사·익스플렉스
 대표인사: 김현민



쌀값 왜 이렇게 떨어지나

수입쌀 시판·소비 격감 따라 1년새 22% 급락
 하반기 中·호주산 쌀도 개방...가격 하락 압박

시중에 내다 팔지 못한 민간 업체들이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칼로스를 구매하고, 이 쌀이 국내 대형 할인점이나 일반 판매점 등에서 덩핑으로 팔릴 경우 가격이 흔들리고 있는 국내 쌀값 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통된 칼로스를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입찰 예정가격이 10~20%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내산 쌀값도 덩달아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학교 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서 우리 쌀 사용을 확대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쌀값이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미국산 수입쌀 칼로스 시판에 이어 급락 하반기 이후 미국, 중국, 호주 등 외국산 쌀이 줄줄이 수입될 예정이어서 쌀값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쌀값 하락은 수입쌀 시판에 따른 쌀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쌀 소비량 격감 △대형 할인점의 미기상품 활용 등의 국내적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입쌀 본격 시판을 맞아 휴경제도 확대, 대체 작목 개발 등 미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몇 년 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산 쌀값이 이달 초 칼로스 시판 이후 또다

시 떨어지는데다, 구매를 통해 사들인 칼로스를 하루빨리 처리하려는 업체들의 구매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내산 쌀값의 동반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전남도가 발표한 최근 쌀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정곡 산지가격은 80kg 기준 13만7천428원으로, 칼로스가 처음으로 구매된 지난 5일의 13만7천488원에 비해 60원(0.04%) 하락했다. 조곡 가격 역시 40kg 기준 4만4천551원으로 지난 5일의 4만4천681원보다 130원(0.3%) 떨어졌다.

농협 전남본부 측은 이와 관련 정곡의 소비자가격이 아직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칼로스가 20kg 들이 한 포대에 국내산보다 5천~7천 원 가량 저렴한 3만3천 원선에 시판되고 있는 만큼 국내산 쌀에 대한 가격 하락 압력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 측은 특히 구매된 칼로스의 반품이 속출하고, 지난 26일 진행된 구매에서 칼로스 낙찰률이 0%를 기록한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사들인 칼로스를

정몽구회장 사전 구속영장

검찰, 정의선 사장은 불구속 수사키로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몽구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수사하고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사법처리 방침은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11면>

재동육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1시 10분 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 사장은 부자 구속에 따른 부담, 현대차 사법처리 방침은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社告

'월요광장' 필진 바꿉니다

광주일보 대표 칼럼 '월요광장'의 필진이 내달 1일부터 새로 바뀝니다.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새 필진은 전문 지식과 해안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새 필진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사회의 첨예한 갈등구조에 대한 해법과 함께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과제 등 국내·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필치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임내현 변호사 이정록 교수 정준모 큐레이터 고영진 교수

◇임내현(林來玄) 변호사
 ▲광주 출신 ▲서울대 법대 졸, 미 서던메소디스트대 법학석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전주지검장, 대구·광주 고검장, 법무 연구원장, 열린우리당 법률구조위원회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정록(李稜錄) 전남대 교수
 ▲광양출신 ▲전남대 지리교육과, 전남대 대학원 석·박사, 동경대 객원교수, 미 매사추세츠 클라크대 객원교수, 오하이오 주립대 박사후과정 ▲현 대한지리학회 회장, 새국토 연구협의회 공동대표

◇정준모(丁俊模) 미술 평론가
 ▲서울 출신 ▲중앙대 미술대, 홍익대 대학원 석사 ▲제1회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장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저서: 미술관 관람의 길잡이

◇고영진(高英津) 광주대 교수
 ▲담양출신 ▲서울대 국사학과,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 ▲한국 역사연구회 편집위원, 학술진흥재단 책임전문위원, 계간 '역사비평' 편집위원 ▲저서: 조선시대 사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

光州日報社

日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주장 독도 외교전 비화

일본 정부가 26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갈등이 외교전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관련기사 3면>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26일 "실효지배는 한국에서 바라본 표현으로, 불법적인 점거의 정당화에 연결될 수 있다"며 "향후 일본 정부는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

혔다.

여야는 27일 일본 정부의 '불법점거' 표현 공식사용 입장 표명과 관련,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한 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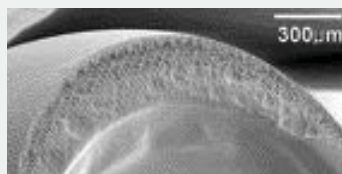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빠르면 다음 주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향후 독도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이용·조사 대상과 일정 등을 담은 것으로 다양한 독도 보전·이용 방안이 포함돼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함평 나비축제 내일 개막 29일 개막하는 '제8회 함평나비대축제'에 앞서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생활 폐품을 이용해 만든 곤충 조형물을 관심어린 눈길로 쳐다보고 있다. /내평주기자 mjna@kwangju.co.kr

재미과학자 '인공 곤충 눈' 개발

사이언스 온라인판 게재



곤충의 눈을 본뜬 '인공 눈'이 재미 한인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UCLA) 이영세 교수와 김재연·정기훈 박사팀은 수천 개

의 인공 눈들이 돔 모양으로 배열돼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체의 빠른 움직임도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생체모방기술을 적용한 '인공 눈'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작년 11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표지 이미지로 채택되면서 간략히 소개됐으며 정기훈 박사를 제1저자로 한 논문 전문이 사이언스 온라인판에 이날 게재됐다. /연합뉴스

후원학원 창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세계로 뚫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im.ac.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생생 한국물가정보
 TEL.1577-7200 FAX.152373-4802

1,000만 오토후 운전지님!
 후보요금 기쁨은 배고 타십니까?

1000만 오토후 운전지님!
 후보요금 기쁨은 배고 타십니까?

1000만 오토후 운전지님!
 후보요금 기쁨은 배고 타십니까?

54
 오토후 6.3%에
 최대 38.6%까지 할인!!

대한민국 자동차보험
 1. 보험료 6.3% 할인
 2. 보험금 지급률 99.9% 이상
 3. 보험금 지급 속도 1시간 이내
 4. 보험금 지급 금액 100% 지급
 5. 보험금 지급 횟수 100회 이상
 6. 보험금 지급 횟수 100회 이상
 7. 보험금 지급 횟수 100회 이상